



CDI 2014-22

2014년도 충남문화정책연구 1차 포럼

문화예술, 유산 활용 방향과 과제 - 국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2014. 4

일시 ■ 2014년 4월 3일, 16:00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세미나실

주관 및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프로그램

시 간	진 행 내 용
16:00~16:10	인사 및 소개
16:10~16:40	<div>주 제 발 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제 : 지역별 문화예술 우수사업 사례 ■ 2주제 : 지역별 문화유산 우수사업 사례 <p>김설하(감자꽃 스튜디오 연구실장)</p>
16:40~18:00	<div>종 합 토 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지정토론자 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정내수(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박철희(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장) 최영화(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18:00	종합정리 및 폐회

1. 지역별 문화예술 우수사업 사례

김설하 ■ 감자꽃 스튜디오 연구실장

1 [공간/ 시장] 대인시장

1. 개요

- 가. 공간 : 광주광역시 대인시장(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0-9)
- 나. 주체 :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및 대인시장문화예술협회
- 다. 목적 :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재래시장, 작가와 상인과 시장을 찾는 손님이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미래형 공간

2. 공간의 특징

- 가. 배경 : 예로부터 대인시장은 큰 규모와 역과 터미널에 인접한 위치조건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명소였으나, 역과 터미널의 이전으로 그 명성과 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음.
- 나. 시작 : 2008년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행해진 ‘복덕방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장의 빈 점포에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등지를 틀기 시작했고, 이에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면서 지금의 대인예술시장이 탄생함.
- 다. 주요 운영 시설 : 작업실, 전시실(갤러리) 등 시장 내 다양한 예술시설 공존.

3. 프로그램

- 가. 게릴라 공연 : 광주 지역의 인디밴드와 대학교 그룹사운드의 길거리 공연.
- 나. 만물예술마차 : 일반시민들과 작가 및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작가들은 작품을, 상인들은 상품 및 먹거리를, 시민들은 중고품을 판매함.
- 다. 한 평 갤러리 : 대인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판매 및 예술인을 위한 후원행사 개최

4. 시사점

- 가. 복덕방 프로젝트 : “예술은 전시가 아닌 삶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 지역 작가들이 복덕방 중개인을 자처하고 시장의 빈 점포를 찾아내 미술가, 기획가, 인문학자, 문화예술인이 작업실과 사무실을 열도록 안내.
- 나. 대.소.쿠.리 : 대인시장문화예술인협의회로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대인시장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계 종사자들의 순수 자발적 모임. 이들에 의해 시장과 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② [공간/ 양조장] 인천 스페이스빔

1. 개요

- 가. 공간 : 인천광역시 스페이스빔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7번지)
- 나. 주체 : 스페이스 빔 운영위원회
- 다. 목적 : 중앙 집중적 문화예술구조 속에서 지역문화의 독자적 정체성 마련, 공공성·지역성·자율성을 모토로 하는 대안적 미술 활동 공간, 지역의 미술 및 문화·예술 담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시스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함으로써 열려진 만남과 생성적인 소통 주선

2. 공간의 특징

- 가. 배경 : 1995년 ‘지역미술연구모임’으로 출발하여 스터디 진행 및 미술전문지 발간, 전시기획 등의 활동을 벌여오던 중 상시적인 논의와 실천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1월 인천 구월동에 개관.
- 나. 시작 : 이후 2007년 9월 근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는 동구 창영동 배다리 일대에 위치한 옛 인천양조장 건물로 이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문맥을 고려한 다각적 활동 속에서 바람직한 도시공동체 인천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음.
- 다. 주요 운영 시설 : 고두밥실(업무공간), 주모실(주방), 발효실(프로그램 진행), 숙성실(소모임, 자료실), 시음실(전시공간), 우각홀(발표공간) 등

3. 프로그램

- 가. 국내/ 국제 레지던스 : 예술가들의 보다 실험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창작공간과 일정 체류비 및 창작비 지원.
- 나. 신진작가 전시 및 특별기획 전시 : 레지던스 입주 작가 및 신진작가들의 창작품 발표·전시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한 지역민과의 소통 시도.
- 다. 아카데미 : 지역의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회화, 소묘, 공작 등 다양한 예술 강좌 운영.

4. 시사점

- 가. 주요 운영 시설 : 원래 ‘양조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 이를 예술 활동 과정으로 연결시켜 각 공간마다 적절한 명칭과 용도를 부여하여 활용(단 과거와 실제의 사용 용도와는 다름).

③ [공간/ 정미소] 진안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1. 개요

- 가. 공간 : 진안군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91-1)
- 나. 주체 :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운영회
- 다. 목적 :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정미소를 새롭게 복원하여 문화체험공간, 전시공간 등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함.

2. 공간의 특징

- 가. 배경 : ‘정미소’는 마을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경제적 효용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근대적 경험의 장임.
- 나. 시작 :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정미소를 보존하고 여기에서 농민들의 삶의 이야기, 생활사들을 담은 사진 및 영상을 펼쳐 보고자 하는 사진작가 김지연(현 대표)의 개인적인 취지에 의해 설립.
- 다. 주요 운영 시설 : 기계실, 전시실, 체험학습장 등

3. 프로그램

- 가. 체험학습 : 정미소에 대한 향수를 가진 어른 및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미소 체험학습’과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사 체험학습’ 운영.
- 나. 전시 : 정미소를 주제로 한 기록사진 및 영상물 전시.
- 다. 주말장터 :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 호박고구마, 수수, 찹쌀 등 판매.
- 라. 기타 행사 : 이벤트 성격의 정기적 정미기계 가동, 사진교육 및 공모전.

4. 시사점

- 가. 계남정미소는 마을 공통의 경험과 기억을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함.
- 나.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공동체박물관’이란 명칭을 붙임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도 이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주민참여/ 소규모 문화예술 모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1. 개요

- 가. 사업 : 서울특별시 마을예술창작소 사업(마술소)
- 나. 장소 : 서울특별시 ‘마을’(2012년 4월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2012년 10월 민관협력형 모델로 송파·도봉·금천 등 3곳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주민자율형 모델로 20개소가 선정됨.)
- 다. 주체 : 서울특별시
- 라. 대상 : 3명 이상의 주민 또는 주민단체(자부담비율을 최소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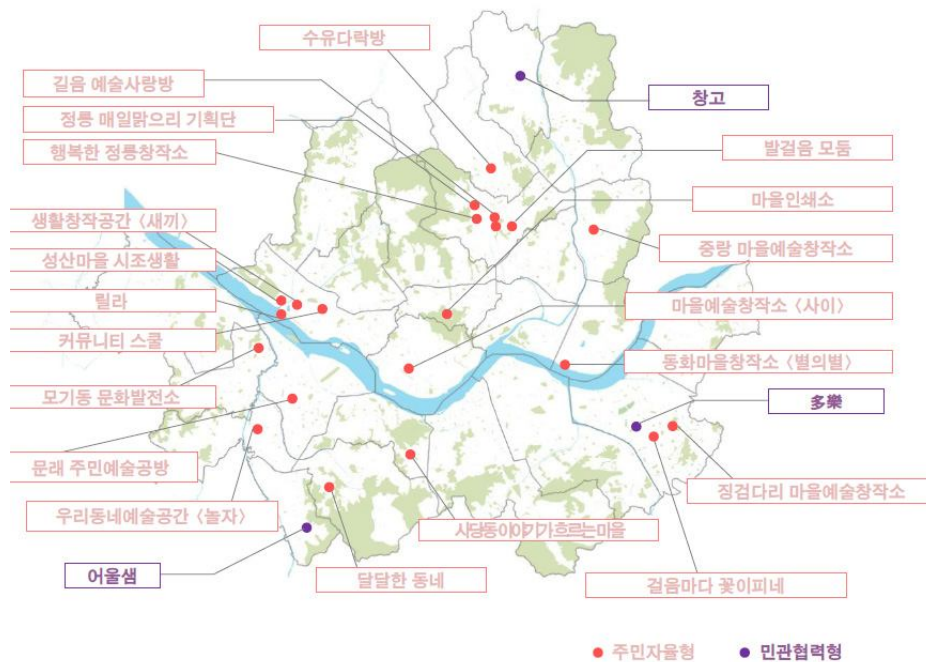
2. 사업 특징

- 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해 추진됨. 전문예술이 아닌 생활형 예술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작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지속성)의 4개 원칙을 조성 및 운영의 원칙으로 함.
- 나. 크게 민관협력형(자치구와 지역전문가로 T/F를 운영하고 마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가 마을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주민자율형(주민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다.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이외에 마을예술창작소 간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지원, 마을예술창작소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마을공동체의 활동 욕구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사업추진절차]



[2013년 선정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23개소)]

- 가. 공간구성 : 2013년에 조성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23개소 중 전용공간이 있는 곳이 18개소, 네트워크형이 5개소, 공간 규모는 29~524㎡로 조성.
- 나. 프로그램 및 콘텐츠 : 강습형에 공방형, 동아리형, 지역형 등이 결합한 형태가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장르별로는 공연 및 미술 등 기존 예술장르에 생활창작이 결합한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 조직·인력·예산 운영 : 총 13억원 정도(2013년)가 투입, 약 150여 명이 운영인력으로 참여함. 대부분의 마을예술창작소는 운영자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를 구성, 주요 결정이 이를 통해 이루어짐.

4. 시사점

- 가. 마을예술창작소간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지원 : 연합 워크숍, 운영자 모임, 경진대회 등 마을예술창작소의 현안과제,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 제공
- 나. 마을예술창작소 활성화 지원 : 평가 및 모니터링, 멘토단 운영, 수익상품개발 등 자율적 마을활동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의제를 먼저 찾아서 마을주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다.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활동육구 단계에 맞는 지원 : 민관협력형은 마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가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율형은 성숙단계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

⑤ [주민참여/ 지역사회 예술가 네트워크] 성북예술창작센터

1. 개요

- 가. 사업 : 서울시 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 나. 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다. 주체 : 서울특별시 후원
- 라. 대상 : 서울문화재단 위탁 운영

2. 사업 특징

- 가. 2009년 11월 (구)성북구보건소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2010년 4월 준공 후 같은 해 7월 28일 개관함.
- 나. 예술가와 시민을 잇는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새로운 대안공간을 목표로 하며, 시민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을 통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 가. 공간구성 : 5층(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성북예술다방·스튜디오·음악실(공감)·갤러리(맺음)·스페이스(소통, 치유, 나눔)·하늘공방·내부순환티밭 등으로 구성
- 나. 프로그램 및 콘텐츠 :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입주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주예술가를 위한 직·간접적 홍보지원 서비스 제공 등
- 다. 조직·인력·예산 운영 : 현재 7팀의 입주 작가 및 단체(공연예술단체, 시각·설치작가와 예술치료 작가 등)가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없음. 한 해 운영비는 약 5억원임(2012년 기준, 전액 서울시 지원)

4. 시사점

- 가. 과거에는 신체를 치유하는 기능의 보건소였으나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정신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개방공간으로 이용됨. 사회에서 외면 받는 소외계층을 문화와 예술로 치유하고 입주 예술가와 성북구민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예술문화를 만들고자 함. 예술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나. 입주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커뮤니티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나의 프로그램 당 10~15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함.
- 다. 입주 작가 및 단체들은 커뮤니티 아트를 기획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다른 주제에 맞는 예술가를 선정함.

⑥ [주민참여/ 예술가-마을주민 협업] 제주문화재단 빈집프로젝트

1. 개요

- 가. 사업 : 제주 문화기획지원 사업-빈집프로젝트
- 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삼달리마을, 하례리마을
- 다. 주체 : 제주문화예술재단
- 라. 대상 : 예술인, 마을주민

2. 사업 특징

- 가. 제주도 내 읍면 지역에 방치된 빈 집·빈 창고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나. 레지던시 작가들은 본인들의 작품 활동과 더불어 마을주민들에게 체험·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3. 사업 내용

가. 공간구성

- ① 삼달리마을 : 감귤창고와 유희공간을 <삼달리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따로 떨어져 있는 1층 건물을 각각 레지던시 공간(쉼)과 전시실(시선)로 구성, 주민들에게 항상 개방되어있고 프로그램도 진행함.
- ② 하례리마을 : <꿈꾸는 고물상>은 2층 집을 리모델링한 창작 공간 ‘고물창고(작가들의 숙소)’와 감귤창고를 리모델링한 체험·참여 공간 ‘보물창고(주방, 스크린, 빔 프로젝터, 피아노, 테이블 및 의자 등)’ 두 개의 동으로 구성, 텃밭 ‘꿈꾸는 이랑’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수확물을 나눔.

나. 프로그램 및 콘텐츠

- ① 삼달리마을 : 레지던시 작가들의 개인작업과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티프로그램(감물염색을 통한 <일복 만들기>, <삼달리 농부, 화가가 되다>, <슬기 어린 이집 방문 체험> 등) 진행. 부녀회 15명, 어린이집 20명 정도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2명의 새로운 주민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 ② 하례리마을 : <꿈꾸는 고물상(since 2012)>은 세 쌍의 문화이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명은 영상 제작과 목공, 공예 작업 등 취급 예술장르가 각기 다름(월 1회 진행하는 ‘고물데이’는 마을주민들로부터 고물을 받는 날이며, 매달 다른 주제(종류)의 고물을 모아 창작 재료로 유용하게 쓰임). 정기적으로 벼룩시장, 뽕굴뽕굴 영화상영회와 일회성 기획전시 및 공연 등을 개최함.

다. 조직·인력·예산 운영 : 사업주체는 작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나 예술작가 개인이어야 하고, 반드시 입주 예술인과는 별도의 큐레이터·기획(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행정담당) 가능자가 있어야 함. 지원 대상 지역은 읍면단위의 농·어촌 마을(법정 ‘리’ 단위)이며 반드시 마을(리) 단위만 지원함. 제주문화재단은 2011과 2012년 제주 문화예술기획지원 사업을 공모해 각각 5개 프로그램을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 5팀 중 빈집프로젝트는 한 팀만 선정됨. 2011년 첫 번째로 미술 창작 전시실 삼달리마을(지원금 : 9천만 원)이, 2012년 두 번째로 공연 창작 스튜디오 하례리마을(지원금 : 1억 원)이 지원됨.

4. 시사점

- 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 재생계획과 연계한 상승효과를 유발함.
- 나.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농·어촌 ‘리(里)’ 단위 마을에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에게는 공간을, 마을주민에게는 문화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함.

⑦ [전통 문화 예술/ 공동체]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1. 개요

- 가. 전통문화예술자원 : 원주 매지농악(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18호)
- 나. 장소: 원주매지농악전수관, 원주시 문화유산
- 다. 주체 : 강원도 원주시/ 원주매지농악보존회
- 라. 목적 : 활기차고 같이하는 즐거움이 있는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통해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 연희농악, 두레농악, 축원농악, 제의농악의 근본정신인 두레와 품앗이의 정신을 매지농악의 핵심가치임을 깨달아, 생생한 기운과 복과 덕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상생천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전통문화예술자원의 특징

- 가. 매지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서 지역의 대표적 인 농악으로,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 3리 회촌 마을에서 6.25 전후 5월 단오제에 단골무당들이 굿을 하고 풍물을 치며 제를 지내고 놀며 지내던 성황제를 이어와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생기복덕한 사람을 제주로 하여 지내는 단오제에서 유래되었음.
- 나. 고장의 옛 풍물 본래의 소박함을 원형대로 잘 보존한 전형적인 두레풍물로 축원, 오락, 두레를 위해 주로 연주되었으며,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

3. 프로그램

- 가. 생기복덕 사계절 마을 축제/ 문화재 도우미 운영
- 나. 원주 생생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 다. 얼라이브(alive) 생생생 금요공연

4. 시사점

- 가. 교육, 공연, 체험이 모두 가능한 ‘농악’의 특성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다양하게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지역의 주민들을 문화재 사업 도우미로 양성하는 ‘문화재 썹썹 도우미’를 운영함.
- 나. 마을 성황당과 관련된 제의 농악, 농사력에 맞춘 두레농악, 지신밟기 등 축원 농악, 연희농악 등의 농악들을 양지마을과 음지마을의 싸움과 경쟁, 화합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성, 전통문화예술자원을 일상과 연관시켜 풍성한 내용으로 발전시킴.

⑧ [전통 문화 예술/ 공동체]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1. 개요

- 가. 전통문화예술자원 : 횡성회다지소리(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 나. 장소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정금민속관
- 다. 주체 : 강원도 횡성군/ 횡성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
- 라. 목적 : 강원도 무형문화재 횡성회다지소리 체험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 장례문화를 보존하고, 회다지소리의 계승 발전 및 전승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전통문화예술자원의 특징

- 가. 상주의 슬픔을 달래주는 한편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민요로, 조상들이 지냈던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드러내어 해학적인 가사가 포함되기도 함. 독특한 기능 민요임.
- 나. 횡성회다지소리는 장례행사 때 죽은 사람을 묻고 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회(灰)를 섞은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로, 느린 가락으로 시작되어 점차 빨라지며 후에는 사람들의 흥을 돋는 식으로 변화됨.

3. 프로그램

- 가. 횡성회다지소리 상설체험
- 나. 횡성회다지소리 문화학교 운영

4. 시사점

- 가. 오늘날에는 전문적으로 장례식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생기고, 병원 등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간소화되었지만, 고인돌부터 시작하여 여러 역사 유적 유물을 감안할 때, 예부터 조상들은 죽은 자를 배웅하는 장례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나. 이러한 장례의식에서 불린 민요로,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무덤을 밟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렀던 회다지소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큼.
- 다. 횡성회다지소리는 그 자체로 잘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죽는 것’은 무엇인지, 장례 의식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와 제공하는 문화재로서 의미를 가짐.

⑨ [전통 문화 예술/ 공동체]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1. 개요

- 가. 전통문화예술자원 : 진도북놀이(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 나. 장소 : 세방낙조, 향토문화회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북놀이민속전수관
- 다. 주체 : 진도군/ 진도북놀이보존회
- 라. 목적 : 진도북놀이 보존·전승, 마을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활용의 활성화와 진도의 브랜드화.

2. 전통문화예술자원의 특징

- 가. 풍물놀이에서 유래한 가장 오래된 놀이로 소리와 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 양손에 북채를 쥐고 장구를 치듯이 다양한 기법으로 연주를 하며, 동시에 화려하고 뛰어난 춤사위도 더해짐.

3. 진행 프로그램

- 가. 지는 해! 노을! 생생 북놀이!
- 나. 토요일민속여행 북놀이 생생 체험!
- 다. 진도 북 페스티벌!!
- 라.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2일!

4. 시사점

- 가. 매주 토요일마다 세방낙조에서 오후 시간에 진행된 <지는 해! 노을! 생생북놀이!>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도 북놀이 전수 조교자, 이수자, 보유자가 직접 시연을 하고, 북놀이를 배워보며 진도 북놀이의 가락과 춤사위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임. 세방낙조 노을이라는 마을의 자연자원 속에 전통문화예술자원을 접목시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음.
- 나. 매월 격주 토요일마다 향토문화회관에서 진도 북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북놀이를 체험하는 <토요일민속여행 북놀이 생생 체험!>, 진도에 있는 세 곳의 북놀이 전수관을 활용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을 구성한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2일>, 서울에서부터 진도까지 전국의 모든 북놀이들이 모여서 공연을 펼친 <진도 북 페스티벌> 등은 북놀이라는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스스로 즐기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함.

2. 지역별 문화유산 우수사업 사례

김설하 ■ 감자꽃 스튜디오 연구실장

❶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1. 개요

- 가. 문화유산 : 아차산성(사적 제234호), 아차산일대 보루군(사적 제455호)
- 나. 장소 : 아차산유적지(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및 사적 제455호 아차산일대 보루군)
아차산생태공원 일원, 아차산향토자료실,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한강문화재연구원
- 다. 주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
- 라. 목적 : 문화유산 투어 및 생생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아차산성 및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적을 홍보하고 활용함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아차산성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돌을 이용해 지어진 산성으로 1997년에 발굴조사가 실시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류와 철기류, 철제 무기류 등이 출토됨.
- 나. 축조 주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각축전을 벌였던 역사적인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3. 프로그램

- 가. 아차산역사문화투어
- 나. 아차산역사문화교실
- 다. 발굴조사 체험교실 - “흙에서 찾은 삼국시대”

4. 시사점

- 가. 선사~고대 유적인 아차산성과, 아차산일대의 보루군의 문화유적 콘텐츠를 활용, 스토리텔링하여 아차산 일대의 유적을 답사해보는 <아차산 역사문화 투어>, 아차산 유적과 유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인 <아차산 역사문화 교실>, 직접 유물을 발굴해볼 수 있는 <발굴조사 체험교실> 등 진행.
- 나. 서울 인근에 잔존하는 산성은 긴 시간 한국의 중심도시였던 서울이 가진 역사적인 중요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유적임.
- 다. 지역 주민들이 집 주변 생태공원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아차산이 사실은 삼국시대부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였고,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발굴’을 통해 찾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②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1. 개요

- 가. 문화 유산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등록문화재41호)
- 나. 장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부산소재 대안학교(참빛학교, 우다다학교, 사과나무학교),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 다. 주체 :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아대학교 박물관
- 라. 목적 : 국가등록 문화재 제 41호인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며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대안학교·병원·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기존의 임시수도정부청사를 박물관으로 리뉴얼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 나. 근대역사자료관, 임시수도 기념관, 임시수도정부청사를 오가던 전차 전시 등을 통해 일방향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단순체험 사업을 극복함.
- 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당시대의 교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전시된 전차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 퍼즐체험, 미니어처 제작 등 국내 유물 박물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

3. 프로그램

- 가. 상시 프로그램 - 부산 근대 역사를 찾아서
- 나. 토요 프로그램 - 탁본 체험하기, 발굴 체험, 도자기 만들기, 탈 만들기, 퍼즐 만들기, 어린이 박물관 학교 등.
- 라. 대안학교, 병원, 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 마.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유산 이해 교원 직무연수

4. 시사점

- 가. 문화재의 정체성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체험, 체득하게 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함.
- 나. 역사문화 체험에 있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 소아암 환자(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임.

③ 나는 성주다

1. 개요

- 가. 문화유산 : 계족산성(사적 355호), 노고산성(대전시 기념물 제19호)
- 나. 장소 : 대전시 권역의 산성과 그 주변
- 다. 주체 :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연대
- 라. 목적 : 계족산성과 노고산성 등 대전지역 40여 곳의 산성을 대전의 대표문화자원으로 인식·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산성의 도시 대전’ 브랜드 구축.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백제시대의 산성 터로 지금은 성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그 윤곽선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나, 당시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벽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나. 계족산성과 노고산성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치로 보아 노고산성이 계족산성의 전초기지로서 금강의 수로와 사이의 도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짐작됨.

3. 프로그램

- 가.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탐험대
- 나. 1박 2일 가족 산성캠프
- 다. 산성 톡, talk

4. 시사점

- 가. 가족 단위의 산성 탐험대를 조직하여 산성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놀이형 체험, 조사탐험, 기록의 방식으로 진행함. 특히 참여 대상을 학생과 부모 1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하루의 체험 활동으로 얻은 역사유적에 대한 관심이 이후 가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신이 산성의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탐험대’는 스스로 산성의 이야기와 가치를 찾아가는 ‘주체형 체험 학습’으로 지역과 가족의 지킴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산성캠프’는 산성에 대한 학습, 야간 백제 군사 미션 훈

런, 성벽 기, 봉수체험, 트레킹 등에 참여하면서 ‘산성’과 연계된 내용들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음.

라. 일회적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참가 어린이 및 가족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가지고 세미나와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함.

4 백 년의 빛, 천 년의 소리를 찾아서

1. 개요

- 가. 문화유산 : 울기등대 구 등탑(등록문화재 제106호)
- 나.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울기등대 일원(대왕암공원 내)
- 다. 주체 : 울산광역시 동구
- 라. 목적 : 근대화의 기원이 되는 대표적 역사자원인 ‘울기등대’의 가치 재발견, 참여와 체험을 통한 문화재의 의미 재정립.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울기 등대와 대왕암, 화암추 등대와 솔도, 바다가 합쳐진 문화재 콘텐츠를 연계함.
- 나. 근대화의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침략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는 극일 교육과 천년 고도 신라의 소리를 동시에 접함으로써 역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를 지님.
- 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빼앗긴 우리 땅에서 울산 해전을 지켜보는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3. 프로그램

- 가. 등대체험 - 100년의 빛을 찾아서
- 나. 문화어울림 한마당 - 백년의 빛과 천년 소리의 만남

4. 시사점

- 가. 지역 내 잊혀져가는 근대 유산을 방치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인식, 새로운 시각에서 상품화하는 선진 문화마케팅 능력과 프로그램 기획력을 발휘함.
- 나. 전자향해보조기구의 등장으로 사라져가는 등대의 역할을 인문학적 접근으로 재해석, 등대에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
- 다. 선박가상시물레이션과 4D 영상체험 등대탐방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해양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동시에 그 이면에 얹혀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추구함. 프로그램 참여자의 감각과 감성 모두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님.

⑤ 역사 속 전통 농사와 종택의 만남

1. 사업 개요

- 가. 문화유산 : 군포 동래정씨동래군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95호)
- 나. 장소 : 경기 군포시 속달마을 및 종택 일원
- 다. 주체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 라. 목적 : 유형의 문화유산(동래군파 종택), 무형의 문화유산(전통농사), 기록 문화유산(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유산 체험 기회 제공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종택’이 지닌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전통 농사’ 체험의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나. 종택 본가라는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가족, 지역 네트워킹을 통한 주말 농장과 귀농에 관심 있는 청장년층의 참여도가 높음.
- 다. 종택 본가를 근간으로 전시실을 마련하고, 정난중 선생 묘와 신도비 묘역 등과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등 연계 확장 가능

3. 프로그램

- 가. 자연유산 위에 써내려가는 생태적 문화유산 이야기 ‘임원경제지 속 전통농업 오감 체험’

4. 시사점

- 가. ‘종택’과 ‘전통농사’라는 유·무형 문화재의 조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나. 특히 전통농사법에 대한 사계절 체험과 종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재와 함께하는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수 있을 것임.
- 다. 또한 종택의 역사성 및 문화적 보존가치 등 의미 있는 이야깃거리들을 발굴, 스토리텔링한 콘텐츠가 프로그램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인문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체험이 가능해질 것.

⑥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1. 사업 개요

- 가. 문화유산 :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유형문화재 151호 안심사판 제진언집, 152호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 153호 용천사판 불설아미타경, 154호 안심사판 옥추보경, 146호 만연사판 중간 진언집, 147호 불정심다라니경, 148호 예념미타도량참법
- 나. 장소 : 치악산고판화박물관
- 다. 주체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고판화박물관
- 라. 목적 :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판화 박물관 목판본 삽화를 역사·문화 교육자원으로 활용, 국내에 하나뿐인 고판화 박물관을 전통판화체험교육의 메카로 육성함.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고판화박물관은 2004년에 개관, 한국·중국·일본·티벳·몽골·인도·네팔 등 판화가 발전되었던 동양 각국의 고판화 자료들을 수집, 보관, 전시, 연구, 교육하는 곳임.
- 나. 총 3,5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판화박물관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오륜행실도의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직지심경 판본 등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음. 그 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임.
- 다. 목판화는 인쇄술의 기본이 되므로 고판화박물관의 문화유산들은 의미와 가치를 지님.

3. 프로그램

- 가.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학생/ 일반시민/ 문화소외계층)
- 나. 지정문화재(목판본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전문가집단)
- 다. 한·중·일 목판본 국제학술대회

4. 시사점

- 가.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는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소장 목판본 삽화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학술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학생, 일반시민 및 문화소외계층,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15~16회에 걸쳐 판화에 대해 알아보고, 고판화박물관에 대

한 설명을 듣고, 전통판화를 체험해 보고, 책을 만들어 보는 순서로 진행됨.
나. 학생, 일반시민, 전문가 뿐 아니라, 직업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은 문화재 활용 사업이 지역의 문화향유를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㉞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1. 사업 개요

- 가. 대상문화재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남파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목사내아(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정수루(도문화재자료 제86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 나. 장소 : 나주읍성권(나주 도심),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전수교육관과 소재 명하쪽빛마을(2011년 농촌관광테마-쪽천연염색 마을)
- 다. 주체 :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문화원
- 라. 목적 : 오래된 역사도시의 가치를 활용하여 도시 매력을 창출하고 지역을 재생함.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나주는 조선의 도시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고도로, 도시 전체가 조선의 도시 철학과 통치 정신을 공간을 통해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재·역사교육 공간.
- 나. 조선시대의 도시 행정, 교육기관, 민가를 보존 및 복원하고 있는 지역 장점을 고려, 각 문화재(목사 관아, 객사, 향교, 성곽 등)의 개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재의 정체성들이 모여 조선의 정신을 상징하도록 기획함.
- 다. 쪽염색은 근대 이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로서 유일하게 나주 지역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음. 나주는 전통 쪽염색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임.

3. 프로그램

- 가.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4. 시사점

- 가. 도시사를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공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건축 및 공간 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한국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됨(나주의 문화재는 도시 공간에서의 건축물 자체도 매우 우수하고, 이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개화기의 공장 및 일식 건물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조선 시대와 그 이후의 공간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음).
- 나. 각 공간을 이동하면서 개별 특이점을 확인하고, 그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성문에서의 축문을 읽는 체험, 향교에서 족자에 붓글씨를 써보는 체

험, 목사 관아에서 나주의 음식과 풍류를 즐기는 체험, 쪽염색 체험 등 공간에 적합한 각 프로그램들은 참여자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⑧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1. 사업 개요

- 가. 문화유산 :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명승 제71호)
- 나. 장소 : 남해군 지족마을
- 다. 주체 : 경남 남해군/ 경남발전연구원
- 라. 목적 :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활용, 원시어업 체험을 통한 문화재 홍보 및 관광자원발전.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지족해협 죽방렴은 500년 전 옛 선인들이 거센 물살을 이용해 고기를 잡던 방식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어업활동임.
- 나. 원시어업인 대나무어사리의 체험을 통해 옛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임.

3. 프로그램

- 가.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4. 시사점

- 가. 오랜 역사를 가진 선조들의 생업활동이 오롯이 원형으로 남아 있는 곳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그 희소성과 희귀성이 체험형 프로그램과 결합하게 되었을 때 높은 교육적 가치를 창출함.
- 나. 죽방렴 체험과 연계한 야간 낚시나 새벽의 해바리 체험 등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
- 다. 인근 지역의 '남해유배문학관'과 '관음포 전물유허지' 답사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⑨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칠머리당 영등굿

1. 사업 개요

- 가. 문화유산 :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칠머리당영등굿
- 나. 장소 : 제주도 일원 및 무형문화재전수관
- 다.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라. 목적 : 전통 문화유산(제주는 당굿의 고장으로 오랜 옛날부터 본향당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는데, 이때 본향은 공동체의 생산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마을의 정신적인 구심체 역할을 함. 따라서 당굿은 삶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교육자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며 무형문화재로 일반인들이 그 본령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본향당 뿐 아니라 곳곳에 당굿과 관련된 시설(천제단 등) 및 장소가 존재함.
- 나. 현재 시점에서도 제주인의 일상에 깊숙히 새겨져 있는 영등굿은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콘텐츠임.

3. 프로그램

- 가. 찾아가는 칠머리당영등굿 <본향당신의 품에서 놀아보기>
- 나. 제주전통문화강좌 <궐~낭들~랑 열~두당~번 연물 장단에 오금이 절로 논다!>
- 다. 영등할망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신당 기행 <영등할망 보름길 걷기>

4. 시사점

- 가. 제주굿의 원형을 가공하지 않고, 영등굿이 지닌 신화적 이야기와 상징성, 공연 예술적 요소를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 내용으로 함. 영등굿과 관련된 장소(현장)를 찾아가면서 굿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탐방>, 영등굿에서 사용되는 <악기와 가락, 춤 익히기>, 여러 기매(굿상에 오르는 여러 상징물들)를 직접 만들고 영등굿의 신화 이야기를 토대로 극을 만드는 <연극놀이> 등 세 가지 범주로 기획됨.
- 나. 제주를 삼다(바람, 돌, 여자)와 삼무(도둑, 거지, 대문)와 함께 삼보(자연, 민속, 언어)라는 특징이 있음. 삼보 중 ‘자연’은 일반 관광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언어’는 제주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체험이 어려우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민속’은 제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임.